

K-IFRS 도입이 영업권손상차손 인식의 적시성에 미친 영향[†]

백정한* · 최중서**

<요 약>

본 연구는 K-IFRS 도입과 함께 기존의 상각규정을 폐지하고 매기간 손상검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영업권 회계변경이 영업권손상차손 인식의 적시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원칙중심기준인 K-IFRS는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을 강화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공정가치평가를 확대하였으며 동일한 맥락에서 영업권과 같은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1년에 1회 이상 수행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영업권 회계변경의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새로운 손상검사절차가 경영자들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어 영업권손상차손의 인식이 적시성 있게 수행되기 보다는 기회주의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개별 기업에서 관찰될 수 있는 손상징후를 고려하지 못한 채 회계변경 전·후의 영업권 감액 빈도와 크기에만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어 그 결과에 편의(bias)를 포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Ramanna and Watts(2012)의 손상징후에 대한 정의를 활용하여 새로운 손상차손절차가 적시성 있는 회계정보의 전달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영업권을 보유한 947개 기업-연도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업권손상차손 인식의 적시성은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더미변수의 형태로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연속변수의 형태로 이용한 다변량 회귀분석 모두에서 K-IFRS 이전에 비해 이후 기간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다 강건하게 하기 위해 또 다른 영업권 손상징후를 이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재차 수행한 결과도 일관된 모습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기준 제정기관들이 영업권 회계기준 변경을 통해 보다 적시성있고 목적 적합한 회계수치를 작성하도록 의도하였던 것과 달리 경영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악용하여 영업권손상차손 인식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영업권손상차손 인식의 적시성이 감소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영업권손상인식의 적시성 변화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분석방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편의(bias)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영업권손상에 대한 징후를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여 회계변경으로 인한 손상차손인식의 적시성 변화를 보다 직접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핵심주제어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영업권, 손상차손, 적시성

논문접수일: 2015년 10월 22일 수정일: 2016년 02월 17일 게재확정일: 2016년 02월 22일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박사(제 1저자), jhbaek@pusan.ac.kr

**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교신저자), jschoi@pusan.ac.kr

I. 서론

우리나라는 국제자본시장의 회계기준 단일화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기존의 기업 회계기준(K-GAAP)이 규정중심기준(rule based standards)이었던데 반해, K-IFRS는 회계처리과정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만을 제공하는 원칙중심기준(principle based standards)으로 개별 기업의 경제적 실질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가진다(Barth et al. 2008). K-GAAP과 K-IFRS의 중요한 차이 중 하나는 유·무형자산에 대한 공정가치평가(fair value model)의 확대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보유한 경제적 자원에 관한 실질적 정보를 더욱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일부 자산 항목에 대한 공정가치평가는 필연적으로 경영자의 주관에 의존하게 되고 이를 악용한 기회주의적 회계선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 역시 가지고 있다(Ball, 2006; Francis and Wang, 2006). 본 연구는 K-IFRS 도입으로 인해 변화된 영업권 손상회계에 대해 관찰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지지하고 있는 공정가치평가 확대가 회계정보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K-GAAP이 영업권에 대해 20년이 넘지 않는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정액법 또는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amortization)을 요구하였던 것과 달리 K-IFRS는 영업권을 '비한정내용연수의 무형자산'으로 보고 매년 1회 이상의 손상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이는 영업권의 내용연수 추정에 경영자

의 주관이 자의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기업이 취득한 영업권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므로 그 가치가 매년 감소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회계기준 제정기관들은 위와 같은 회계변경이 자본시장참여자들에게 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손상검사과정에서 추정되는 영업권의 공정가치¹⁾가 기업의 현재상황과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를 모두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영업권은 활성시장이 없기 때문에 회수가능액의 추정을 사용가치에 의존하고 있다. 사용가치의 추정에는 일반적으로 현금흐름할인모형(discounted cash flow: DCF)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며, DCF를 통해 추정된 회수가능액은 기대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더욱 목적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업권 회계변경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 회계변경 초기의 정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영업권손상차손이 자본시장에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Chen et al. 2008; Godfrey and Koh, 2009), 표본기간을 확장한 다수의 연구들은 경영자가 영업권손상인식의 시기를 임의로 지연시켜 개인의 효익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Beatty and Weber, 2006; Hamberg et al. 2011; Muller et al. 2012; Ramanna and Watts, 2012).

Hamberg et al.(2011)과 노민영 등(2012)은 각각 영업권 회계변경 이전과 이후에 영업권 감액의 크기와 빈도를 비교하여 IFRS(혹은 K-IFRS) 도입 이후 영업권손상차손의 인식이 지연되고 순이익과 순자산이 과대계상되고 있으며 이를 영업권손상차손 인식의 적시성이 하락하고 있는

1) 이하에서는 영업권의 공정가치와 회수가능액을 혼용하여 사용한다.

것으로 해석하였다.²⁾ 즉, 회계기준 제정기관들의 기대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영업권 회계변경이 경영자에게 추가적인 재량권을 부여하여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러나 회계기준변경을 전·후한 영업권 감액의 빈도 혹은 양의 단순 비교만으로 영업권손상인식의 적시성 악화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³⁾ 왜냐하면, K-IFRS 도입 이전에는 모든 기업이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인식으로 인해 지속적인 감액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K-IFRS 도입 이후에는 손상징후가 관찰되는 기업에 한해서 손상검사를 실시하며 손상검사결과,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기업들만 손상차손을 인식하므로 기간 간 영업권 감액의 규모에 체계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

뿐만 아니라, 영업권손상인식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손상을 인식하여야 할 사건의 발생과 손상차손의 인식 사이에 시차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는 K-IFRS 도입을 전·후한 영업권 감액의 크기나 빈도의 비교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전술한 선행연구들이 영업권손상차손인식의 빈도와 양이 감소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한 반면, AbuGhazaleh et al.(2011)은 영업권 회계변경 이후, 영업권손상차손이 이익의 하향조정수단으로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백정환(2015)은 영업권손상인식에 대한 재량적 의사결정을 손상징후에 관계없이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가속의사결정과 손상징후가 관찰됨

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지연의사결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들이 서로 유사한 빈도로 관찰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영업권손상의 인식이 기업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경영자의 의도에 따라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영업권손상에 대한 징후를 정의하는 방법을 통해 영업권 손상인식 적시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Ramanna and Watts(2012)의 영업권손상에 대한 시장징후를 원용하며, 손상에 대한 시장징후가 나타난 기업들의 손상차손인식여부를 분석하여 K-IFRS의 도입이 영업권손상차손 인식의 적시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KOSPI와 KOSDAQ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기말 재무상태표를 통해 영업권 장부금액을 보고한 바 있는 947개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였다. 이후 표본기업 중 영업권손상차손 인식기업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K-IFRS 도입 이전·이후를 구분하는 더미변수와 영업권손상에 대한 시장징후의 관찰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교차항을 주요검증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모형(logistic regression)과 영업권손상차손 인식액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영업권손상인식의 적시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접근방법은 기존의 문헌들이 영업권손상인식을 손상징후와 함께 고려하지 못한

2) 노민영 등(2012)은 실증분석결과를 해석하며 영업권 손상평가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러한 프로세스를 확립하지 못한데서 기인할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3) 선행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업권 감액(write-down)은 영업권 회계변경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손상차손인식액과 감가상각비의 합을 의미하며, 영업권 회계변경 이후에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된 금액을 말한다.

4) 노민영 등(2012)의 연구는 K-IFRS 이전 기간의 영업권 감액에서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손상차손만을 이용하여 K-IFRS 이후 기간의 손상차손 규모와 비교하는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이전의 분석 결과와 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K-IFRS 이전의 회수가능액이 기대미래현금흐름의 단순합이었던 것과 달리 K-IFRS 이후에는 회수가능액이 기대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감액의 크기를 비교한 실증분석 결과에 편의(bias)를 가질 수 있다.

데서 초래되는 실증적 단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하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III장에서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제시하며 모형과 관련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 그리고 표본선택에 대해 언급한다. IV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V장에서 연구결과의 요약과 연구결과의 시사점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맺는다.

II. 선행연구와 가설설정

1. 선행연구

SFAS No.142와 IFRS 3 이후 다수의 연구들이 영업권 회계기준 변경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는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영업권 회계기준 변경이 자본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들은 대부분 포괄손익계산서를 통해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된 영업권손상차손의 정보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Chen et al.(2008)은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SFAS No.142 도입 이후 영업권손상차손의 가치관련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하며 영업권손상차손이 자본시장에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Godfrey and Koh(2009)의 연구에서는 SFAS No.142하에서 영업권손상차손이 기업의 투자기회 및 수익률과 음(-)의 관계에 있다는 증거를 통해 변경된 회계기준이 경영자들로 하여금 가치관련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고 주장하였다.

Jarva(2009)는 영업권손상차손이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지 분석하여 영업권손상차손의 크기가 작을수록 $t+1 \sim t+2$ 기에 걸쳐 실제 장부에 인식된 현금흐름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는 이러한 결과가 영업권손상검사를 통해 경영자의 사적정보가 시장에 전달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보다 목적 적합한 회계정보를 제시하고자 한 제정기관의 의도와 일치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Li et al.(2011)의 연구는 영업권손상차손을 공시한 기업에 대해 투자자와 재무분석가들의 기대가 하향조정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으며, 영업권손상차손과 기업의 수익성은 음(-)의 관계에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며 손상차손이 정보효과를 가진다고 제시하였다. 이처럼 영업권 회계변경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영업권손상차손의 정보효과를 검증하고 있으며 주로 회계기준 변경 초기의 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분석하고 있다.

한편, 영업권 회계변경 효과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은 경영자의 사적 정보에 의존하는 현행 영업권의 손상검사절차가 경영자에게 과도한 채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영업권손상차손의 인식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Hamberg et al.(2011)은 스웨덴 기업을 대상으로 IFRS 3의 도입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⁵⁾ 분석 결과, IFRS 3 도입 이후, 자본화된 영업권 금액이 유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입 이전 기간의 영업권 감액에 비해 도입 이후의 영업권손상차손으로 인식된 금액의 크기가 유의하게 낮아 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Hamberg et al.(2011)은 IFRS 3 도입 이후 영업권의 손상검사절차에 경영자들이

5) Hamberg et al.(2011)에 따르면 스웨덴은 IFRS 의무도입 이전부터 자국의 회계기준을 IFRS와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로 인해 IFRS 의무도입으로 인한 회계변경의 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아 IFRS 3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주장하였다.

개입하여 영업권손상인식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Beatty and Weber(2006)는 경영자들이 영업권손상인식의 시기(timing)와 양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영업권손상의 징후가 나타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의 회계선택을 분석하였다.⁶⁾ 분석 결과,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상황에 따라 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가 달라지고 있으며 특히, 부채계약의 위반, 경영자 보상 및 경영자 교체, 상장폐지의 위험 등과 같은 유인에 의해 영업권손상인식이 결정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Ramanna and Watts(2012)는 영업권손상인식을 지연하는 경영자의 회계선택이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사적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혹은 개인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기회주의적 행위인지 분석하였다. 이들은 연속적으로 순자산 장부 가치가 기업의 시가총액을 초과하는 것을 영업권손상에 대한 시장징후로 정의하고 시장징후가 관찰되면서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기업을 지연의심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영업권손상인식의 지연은 경영자 보상과 명성, 부채계약의 위반 등의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었으며,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신호를 나타내는 대응치들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권 상각을 폐지하고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게 하는 손상검사의 실시로 인해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Li and Sloan(2014)은 영업권손상에 대한 징후를 장부징후와 시장징후로 구분한 후 손상징후가 관찰되는 기업에서 영업권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한 바 있다. 이들은 실증분석을 통해 영업권손상인식이 지연되고 있으며 약 2~3년여의 시차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도 영업권 회계변경을 주제로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실증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손혁 등(2011)은 K-IFRS하의 영업권손상검사는 근본적으로 경영자의 재량에 의존하는 정도가 매우 높으므로 경영자가 개인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업권의 손상검사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제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권수영 등(2011)은 K-IFRS의 도입으로 인해 확대되는 공정가치평가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영업권으로 보고, 영업권 손상평가절차 및 평가기법에 대한 실무지침을 제공하며 영업권은 그 인식에서부터 배분, 손상검토 등 모든 과정에 경영자의 상당한 자의성과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오명전(2014)은 실제 영업권 손상검사 사례를 통해 K-IFRS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상검사의 절차, 평가방법 및 손상검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곽수근 등(2011)은 유진그룹의 사례를 통해 영업권 상각기준의 폐지로 인해 회계이익이 크게 개선되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며 이에 따라 상장가능성이 높아지는 등의 여러 가지 부수적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⁷⁾

영업권 회계변경과 관련되어 국내에서 수행된 일부 실증연구들 역시 영업권 회계변경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노민영 등(2012)

6) Beatty and Weber(2006)는 SFAS No.142 도입 최초 연도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손상징후가 관찰되는 기업에 대해 시가총액과 영업권을 제외한 순자산 장부금액의 차이가 영업권의 장부금액보다 작은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7) 국외연구인 Carlin and Finch(2011)와 Wines et al.(2007) 역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영업권 회계처리에 경영자의 개입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뢰성 판단에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감사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은 K-IFRS 도입 이후 영업권 감액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을 손상검사과정에 경영자의 재량이 반영되어 이익이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박석진과 이은철(2014)은 영업권손상인식 여부에 경영자 교체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분석을 실시하여 신입경영자들이 영업권손상인식을 big bath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정대현 등(2015)은 영업권손상차손을 이용한 이익유연화와 big bath 행위가 K-IFRS 도입 이전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제시하며 경영자들이 영업권손상차손을 이용하여 이익을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상술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이 영업권 손상에 관한 징후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백정환(2015)은 영업권손상차손 인식에 대한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개별기업수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손상징후를 결합한 형태로 파악하였다. 백정환(2015)은 영업권 손상에 대한 회계선택을 정상적 사결정과 재량적 의사결정으로 구분하고 재량적 의사결정의 정보효과를 분석하여 경영자들이 영업권 회수가능액의 추정을 통해 사적 정보를 시장에 전달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량적 의사결정을 수행한 기업의 회계정보는 정상적사결정을 수행한 기업의 회계정보에 비해 주시가격에 대한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추가적 예측능력을 가지지도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백정환(2015)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영업권 회계의 변경이 경영자에게 추가적인 재량권을 부여하여 기회주의적으로 남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영업권손상차손으로 인식된 정보는 자본시장에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경영자들의

기회주의적 유인에 따라 그 인식 시기가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회계기준 변경 이전과 이후의 영업권 감액의 크기가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영업권손상인식이 지연되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는 그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술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손상징후를 고려한 영업권손상인식의 적시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는 차별적인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가설설정

유형자산 등 여타의 자산분류와 달리 시간의 경과나 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익의 감소가 분명하지 않은 영업권에 대해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여 상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회계학계의 중요한 쟁점이었다.⁸⁾ K-IFRS는 사업결합으로 인해 취득한 영업권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영업권의 가치가 매년 감소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정액법 혹은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최대 20년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도록 규정하였던 K-GAAP을 폐지하였다. 대신 2011년 도입된 K-IFRS는 영업권에 대해 매 회계연도마다 손상검사를 통해 손상이 발생한 경우 혹은 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이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K-IFRS는 이러한 회계변경을 통해 공정가치를 반영한 회계정보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8) Zeff(2005)는 과거 미국의 Committee on Accounting Principle(CAP)과 Accounting Principle Board(APB) 체제 붕괴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영업권 회계에 대한 합의달성의 실패를 지적하였다.

그러나 회계기준 제정기관들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먼저, 영업권에 대한 상각기준의 폐지로 인해 기업은 더 이상 영업권과 관련한 비용을 기계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사라져 보고이익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경영자는 손상인식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성과를 더욱 돋보이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⁹⁾ 또한 영업권의 손상을 인식하는 것은 경영자가 영업권을 취득한 사업결합 의사결정과정에서 인수대가의 과다지급이나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를 과대평가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¹⁰⁾ 즉, 경영자 본인의 명성을 위해 영업권손상인식을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영업권과 같이 자산이 거래되는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일부 자산분류들은 자산손상에 대한 경영자 의사결정의 정당성에 대한 검증이 더욱 어렵다. 이로 인해 경영자들은 영업권손상인식에 의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영업권이 적시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영업권 회계변경 이후 손상차손의 인식이 적시성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실증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영업권손상차손인식의 적시성은 K-IFRS 도입 이전과 이후에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III. 연구설계

1. 연구모형의 설계

1.1 영업권손상징후의 정의

본 연구는 K-IFRS 도입으로 변경된 새로운 영업권 회계기준이 영업권손상인식의 적시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이 회계기준변경 전·후 시점의 영업권감액의 크기를 비교하였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영업권손상징후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K-IFRS 도입 기간에 손상징후가 나타나는 기업이 손상차손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Ramanna and Watts(2012)에 제시된 영업권손상에 대한 시장징후의 조작적 정의를 원용할 것이다.

Ramanna and Watts(2012)는 영업권손상을 인식하기 이전의 순자산 장부가치와 시장가치를 서로 비교하여 손상징후를 식별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영업권손상인식 이전의 순자산 장부가치가 기말시점의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손상징후가 발생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시장의 평가의 하락이나 우발부채, 이연법인세부채 등과 같은 재무제표상의 일시적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2개의 회계기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순자산 장부가치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기업을 영업권손상에 대한 시장징후로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영업권손상인식 이전의 BTM(book to market ratio)이 2년 연속하여 1을 초과하는 기업은 영업

9) 이러한 현상은 보유하고 있는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큰 기업일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2012.06.06.)에 따르면 상장기업 중 영업권 장부금액이 가장 높은 기업은 SK이며 동 회사는 영업권에 대한 상각폐지로 인해 매년 2,055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10) Beatty and Weber(2006)는 재임기간이 긴 경영자일수록 과거 영업권을 인식하게 된 사업결합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을 과정이 높으며 이에 대한 손상을 인식하는 것이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영업권손상인식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권손상징후가 관찰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¹¹⁾ 본 연구에서는 자산손상에 대한 시장징후가 관찰되는 기업을 식별하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1.2 가설검증모형

본 연구는 K-IFRS의 도입이 영업권손상인식 적시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실증적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절에서 언급된 영업권손상징후가 관찰되는 기업을 식별하는 더미변수를 활용한 다음의 모형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한다.

$$\begin{aligned}
 GWI_{i,k,t(k=1,2)} = & \beta_0 + \beta_1 KIFRS_{i,t} + \beta_2 SIGN_{i,t} \\
 & + \beta_3 KIFRS \times SIGN_{i,t} + \beta_4 SIZE_{i,t} + \beta_5 LEV_{i,t} \\
 & + \beta_6 BIG4_{i,t} + \beta_7 ROA_{i,t} + \epsilon_{i,t}
 \end{aligned}
 \tag{1}$$

여기서,

$GW1_1$	=	영업권손상차손의 인식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영업권손상을 인식한 기업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짐.
$GW1_2$	=	영업권손상차손/손상인식 이전의 영업권 장부금액.
$KIFRS$	=	K-IFRS 적용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K-IFRS 도입 이후 기간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짐.
$SIGN$	=	영업권손상징후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연속적으로 BTM > 1 인 기업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짐.
$SIZE$	=	기업규모: ln(기초총자산).
LEV	=	부채비율: 기말부채총계 / 기초총자산
$BIG4$	=	감사인이 대형회계법인(삼일, 삼정, 한영, 안진)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짐.
ROA	=	총자산이익률: 당기순이익 / 기초총자산.

위 모형에서 종속변수는 영업권손상차손의 인식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GW1_1$)와 인식된 손상차손의 크기를 나타내는 연속변수($GW1_2$)가

투입되었다. 선행연구에서 영업권 회계변경 이전 기간의 영업권 상각액과 손상차손액 모두를 이용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된 금액만을 이용하여 변수로 투입하였다.¹²⁾ 한편, 손상징후가 관찰되는 기업을 나타내는 더미변수($SIGN$)는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 반영 이후의 BTM이 연속적으로 1을 초과하는 기업을 나타내며, K-IFRS 도입 이전 기간의 경우 영업권에 대한 상각효과를 반영하여 결정되었다. K-IFRS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 영업권의 손상을 인식하지는 않았으나 영업권 내용연수의 변경을 통해 전기에 비해 감가상각비가 증가한 경우와 회계기간 중 영업권을 취득하여 장부금액이 증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권의 감가상각비가 전기에 비해 증가한 경우 모두 손상의사결정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주요관심변수는 $KIFRS$ 와 $SIGN$ 의 교차항이며 회귀계수 β_3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난다면 K-IFRS 도입 이후 영업권손상인식의 적시성이 훼손되었다는 선행연구와 일관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β_3 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진다면 영업권손상과 관련한 회계처리의 적시성이 향상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선행연구들에서 영업권손상에 대한 징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기간 간 감액 수준의 차이만을 고려하여 분석 결과에 편이가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통제변수들로는 생략변수(omitted variable)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기업고유의 특성을 나타내는 기업규모($SIZE$)와 부채비율(LEV)을 투입하였으며, 대

11) 이러한 방법을 통해 손상징후를 식별하는 것은 K-IFRS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산손상의 외부정보와 일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K-IFRS 제1036호에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외부정보와 내부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당해 시가총액보다 큰 경우'를 자산손상에 대한 외부징후로 제시하고 있다.

12)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하는 의미로 영업권 감가상각비와 손상차손을 합한 금액을 모형의 종속변수로 이용한 경우에도 후술하는 분석결과와 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형감사법인을 식별하는 더미변수(BIG4)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역할을 감사인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어 모형에 투입하였다. 끝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경영자의 재량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목적으로 ROA를 분석모형에 포함하였다.

1.3 표본의 선정

본 연구의 표본은 K-IFRS 도입으로 인한 영업권 회계기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각 3년 즉, 200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증권거래소의 KOSPI와 KOSDAQ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다음의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선정하였다.

- (1)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재무상태표를 통해 영업권을 보고한 경험이 있는 비금융기업
- (2)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상장협 데이터베이스(TS-2000) 혹은 Data Guide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재무자료를 추출할 수 있는 기업

- (3) 12월말 결산법인
- (4) 자본잠식이 없는 기업

기업의 영업권손상정보는 회계연도 말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사항’을 바탕으로 수작업을 통해 입수하였다. 이 중 금융업에 속해 있는 기업과 영업권 장부금액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 1,074건의 기업-연도가 최초 표본으로 선택되어졌다.¹³⁾ 최초 표본대상기업 중 비교가능성과 자료의 입수가능성을 고려한 표본선정 기준인 조건 (2), (3)을 만족하지 못하는 90건을 표본에서 제외하였으며 순자산의 장부금액이 음(-)으로 나타난 16개의 표본을 제외하고 968건의 기업-연도를 선정하였다. 끝으로 분석에 이용되는 변수들이 여타 표본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21개의 기업-연도 표본을 제외하고 최종표본 947개 기업-연도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아래의 <표 1>은 이러한 표본선정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표 1> 표본의 선정과정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영업권을 공시한 비금융기업	1,074
연구에 필요한 재무자료를 추출할 수 없는 기업	(73)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기업	(17)
자본잠식 기업	(16)
극단적 관찰치	(21)
최종 표본	947

IV.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량

<표 2>에서는 영업권손상인식의 적시성 변화에

대한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 고려하고자하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표 2>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대부분의 변수들이 평균과 중위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표준편차가 비교적 낮은 값을 나타내

13) 표본 기간 중, 일부 기업들은 K-IFRS를 최초 적용하는 재무제표를 공시하며 K-GAAP에서 보고하였던 영업권 잔액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여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업들이 가진 특성이 분석결과에 미칠 편의를 고려하여 표본선정과정에서 모두 제외하였다.

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각 관찰치들이 극단치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정규분포에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설검증 모형에 종속변수로 투입된 더미변수 GW_1 의 평균은 0.2270으로 표본기간 중 영업권을 보유한 전체 기업의 약 22%에서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연속변수로 측정된 GW_2 의 값은 0.1200으로 영업권손상차손으로 인식되는 크기가 손상 이전 장부금액의 약 12%에 해당한다. 다만 연속변수

로 측정된 GW_2 역시 더미변수인 GW_1 과 동일한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그 의미는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GW_1 의 값들이 단순히 손상인식 여부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달리 GW_2 의 0은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기업을 의미하며 1은 영업권 장부금액의 크기만큼 전액 손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변수명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위수	최대값
GW_1	947	0.2270	0.4191	0	0	1
GW_2	947	0.1200	0.2902	0	0	1
$KIFRS$	947	0.5905	0.4920	0	1	1
$SIGN$	947	0.2764	0.4475	0	0	1
$SIZE$	947	19.0913	1.7312	16.2827	18.5506	25.6156
LEV	947	0.4421	0.2174	0.0098	0.4388	0.9929
$BIG4$	947	0.6235	0.4847	0	1	1
ROA	947	0.0070	0.1189	-0.4819	0.0222	0.5463

1) 변수의 정의 : GW_1 =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짐; GW_2 =영업권손상차손/손상인식 이전의 영업권 장부금액; $KIFRS$ = K-IFRS 도입 이후 기간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짐; $SIGN$ = 연속적으로 기말 BTM > 1인 기업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짐; $SIZE$ = ln(기초총자산); LEV = 기말부채총계/기초총자산; $BIG4$ =감사인이 대형회계법인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짐; ROA =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아래의 <표 3>은 가설검증 모형에 이용된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의 대각선을 중심으로 우상단에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좌하단에는 Spearman의 순위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K-IFRS 이후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기업의 빈도는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규모는 이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영업권회계기준 변경 이전에는 상각을 통해 영업권의 장부금액이 지속적으로 조정되었으나 상

각이 폐지되면서 영업권의 효익창출능력을 고려한 기업의 손상차손인식 의사결정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손상징후를 나타내는 변수 $SIGN$ 은 영업권손상인식 여부 혹은 규모와 5%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손상징후를 식별하기 위해 이용된 변수의 타당성을 일부 지지하는 모습이다. 끝으로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ROA 와 GW_1 (그리고 GW_2)가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업의 성과가 열악한 기업이 보유한 영업권이 기준에 기대되던 경제적 효

<표 3>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

	GW_1	GW_2	$KIFRS$	$SIGN$	$SIZE$	LEV	$BIG4$	ROA
GW_1		0.76***	0.09***	0.02**	-0.13**	-0.01	-0.11***	-0.27***
GW_2	0.97***		0.03	0.09**	-0.12**	0.01	-0.11***	-0.27***
$KIFRS$	0.09***	0.09***		0.05*	0.14**	0.00	0.08***	0.01
$SIGN$	0.02**	0.03**	0.05*		0.05	-0.01	0.03	-0.00
$SIZE$	-0.15***	-0.15***	0.17***	0.12***		0.19***	0.45***	0.23***
LEV	-0.01	-0.00	0.00	-0.00	0.23***		0.06**	-0.13***
$BIG4$	-0.11***	-0.12***	0.08***	0.03	0.47***	0.06*		0.18***
ROA	-0.25***	-0.27***	-0.02	-0.07**	0.23***	-0.18***	0.17***	

1) *, **, *** 은 양측 검증 시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2) 변수의 정의는 GW_1 =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짐; GW_2 =영업권손상차손/손상인식 이전의 영업권 장부금액; $KIFRS$ = K-IFRS 도입 이후 기간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짐; $SIGN$ = 연속적으로 기말 BTM > 1인 기업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짐; $SIZE$ = ln(기초총자산); LEV = 기말부채총계/기초총자산; $BIG4$ =감사인이 대형회계법인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짐; ROA =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익창출능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단서가 될 수 있고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영업권 손상에 대한 시장징후 외에도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 손상징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 가설검증결과

본 연구는 영업권 회계기준이 K-IFRS 도입을 전·후하여 변경되면서 손상차손 인식의 적시성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노민영 등(2012)의 연구는 K-IFRS 도입 이후 영업권감액의 규모가 감소하였다는 단서와 함께 영업권손상인식이 지연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다수의 연구들이 영업권회계변경 전·후의 영업권감액 규모만을 비교하고 있어 분석결과에 편의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다 강건하게 할 목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4>에 제시된 것과 같다.<표 4>의 Column 1은 더미변수(GW_1)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Column 2는 연속형 변수(GW_2)를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Column 1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KIFRS$ 의 계수는 0.7826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나타내고 있어 K-IFRS 도입 이후 영업권손상차손인식의 빈도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SIGN$ 의 계수가 0.7090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하게 보고되고 있음은 연속적으로 BTM이 1을 초과하는 기업에서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영업권 손상징후의 정의가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전술한 변수의 교차항이자 본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인 계수 β_3 는 -0.7358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K-IFRS 도입 이후 기간에는 도입 이전에 비해 영업권손상징후와 관련된 손상차손의 인식빈도가 감소되어 적시성이 저하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Column 2에 나타난 분석 결과도 전반적으로 Column 1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본 연구

<표 4> 가설검증결과

$$GW_{i,k,t(k=1,2)} = \beta_0 + \beta_1 KIFRS_{i,t} + \beta_2 SIGN_{i,t} + \beta_3 KIFRS \times SIGN_{i,t} + \beta_4 SIZE_{i,t} + \beta_5 LEV_{i,t} + \beta_6 BIGA_{i,t} + \beta_7 ROA_{i,t} + \epsilon_{i,t}$$

Variables	Column 1 (Logistic)		Column 2 (OLS)	
	Coef.	Wald- χ^2	Coef.	t-stat
<i>intercept</i>	2.4914*	3.21	0.0822	0.38
<i>KIFRS</i>	0.7826***	14.92	0.1190***	3.85
<i>SIGN</i>	0.7090**	5.36	0.1027**	2.12
<i>KIFRS</i> × <i>SIGN</i>	-0.7358**	4.73	-0.1108***	-2.22
<i>SIZE</i>	0.0186	0.06	0.0089	0.08
<i>LEV</i>	0.4685	2.53	0.0931*	1.88
<i>BIGA</i>	0.2678	2.09	-0.0472	-1.55
<i>ROA</i>	-4.3375***	43.17	-0.0611***	-7.63
<i>No.obs</i>	947		947	
<i>adj.R²</i>	n/a		0.1006	
<i>-2log likelihood or F-stat</i>	933.711***		13.11***	

1) *, **, *** 은 양측 검증 시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2) GW_1 =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짐; GW_2 = 영업권손상차손/손상인식 이전의 영업권 장부금액; $KIFRS$ = K-IFRS 도입 이후 기간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짐; $SIGN$ = 연속적으로 기말 BTM > 1인 기업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짐; $SIZE$ = ln(기초총자산); LEV = 기말부채총계/기초총자산; $BIGA$ = 감사인이 대형회계법인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짐; ROA =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의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먼저 $KIFRS$ 의 계수 β_1 은 0.1190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SIGN$ 의 계수 β_2 역시 0.1027로 5% 수준에서 유의하다. 관심변수의 계수 β_3 는 -0.1108로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으로 조사되어 K-IFRS 도입을 통해 변경된 영업권 회계기준으로 인해 부여된 경영자의 채량권이 영업권과 관련된 적시성 있는 정보를 시장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통제변수 중 ROA 는 두 모형 모두에서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나머지 통제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지 않고 있다.

3. 강건성분석

앞서 제시된 분석결과는 K-IFRS 도입 이후

영업권손상인식의 적시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영업권 상각 규정을 폐지하고 매 회계기간마다 공정가치를 반영한 손상검사를 실시하여 정보이용자들에게 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하는 회계기준 제정 기관들의 기대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영업권 손상인식의 적시성 변화를 판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속적으로 BTM이 1을 초과하는 기업을 영업권 손상에 대한 시장징후가 관찰되는 기업으로 정의하였으나 이러한 변수의 정의는 한계를 지닌다. 왜냐하면, 영업권 손상검사가 현금창출단위에 근거하여 실시되지만 현재의 공시정보로는 현금창출단위의 BTM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Li and Sloan(2014)은 영업권 손상에 대한 징후를 시장징후와 장부징후로 관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Li and Sloan(2014)과 같

은 맥락에서 BTM이 1을 초과하는 것을 시장징후로, 전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였다면 손상에 대한 장부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장징후와 장부징후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을 영업권손상징후가 있는 기업으로 식별하여 앞선 분석을 재차 수행하였다. 이는 영업이익의 감소가 영업권 보유를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창출능력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본 연구의 손상징후 식별법이 가질 수 있는 편의를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아래의 <표 5>를 통해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5>의 강건성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4>의 결과와 질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본

연구의 가설을 계속하여 지지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KIFRS*의 계수는 Column 1과 2에서 0.8888과 0.0468로 각각 1%, 5% 수준에서 유의한 양(+)¹⁾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SIGN*의 계수 역시 0.8408과 0.1301로 각각 5%, 1% 수준에서 유의한 양(+)²⁾의 값을 가진다. 관심변수인 *KIFRS*×*SIGN*의 계수 β_3 는 -1.3532와 -0.1155로 1%,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K-IFRS 도입 이후 기간에는 도입 이전에 비해 영업권손상징후와 관련된 손상차손의 인식빈도가 감소되어 적시성이 저하되었다는 이전의 분석결과와 본 연구의 가설을 모두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강건성 분석결과

$$GW_{i,k,t}(k=1,2) = \beta_0 + \beta_1 KIFRS_{i,t} + \beta_2 SIGN_{i,t} + \beta_3 KIFRS \times SIGN_{i,t} + \beta_4 SIZE_{i,t} + \beta_5 LEV_{i,t} + \beta_6 BIGA_{i,t} + \beta_7 ROA_{i,t} + \epsilon_{i,t}$$

Variables	Column 1 (Logistic)		Column 2 (OLS)	
	Coef.	Wald- χ^2	Coef.	t-stat
<i>intercept</i>	1.0770	0.47	0.0398	0.25
<i>KIFRS</i>	0.8888***	15.00	0.0468**	2.02
<i>SIGN</i>	0.8408**	6.82	0.1301***	3.74
<i>KIFRS</i> × <i>SIGN</i>	-1.3532***	10.22	-0.1155**	-2.56
<i>SIZE</i>	-0.0390	0.23	0.0018	0.22
<i>LEV</i>	-0.3070	0.52	-0.0019	-0.04
<i>BIG4</i>	-0.2678	2.09	-0.0340	-1.51
<i>ROA</i>	-5.0635***	42.23	-0.6334***	-7.44
<i>No.obs</i>	947		947	
<i>adj.R²</i>	n/a		0.0997	
<i>-2log likelihood or F-stat</i>	858.013***		10.98***	

1) *, **, *** 은 양측 검증 시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2) GW_1 = 영업권손상차손을 인식한 기업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짐; GW_2 = 영업권손상차손/손상인식 이전의 영업권 장부 금액; *KIFRS* = K-IFRS 도입 이후 기간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짐; *SIGN* = 기말 BTM > 1이면서 전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한 기업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짐; *SIZE* = ln(기초총자산); *LEV* = 기말부채총계/기초총자산; *BIG4* = 감사인이 대형회계법인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짐; *ROA* =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V. 결 론

IFRS는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사용하는 수준 높은 회계기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IFRS의 전면도입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자본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EU 소속국가들이 의무적용을 시작한 2005년을 기점으로 IFRS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는 회계학 연구들은 다수 수행되어 왔으며 각 연구들은 다양한 회계처리에 주목하여 IFRS의 도입이 회계정보의 품질을 향상시켰는지 분석해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흐름속에서 K-IFRS의 도입을 통해 변경된 영업권 회계처리가 정보이용자들에게 적시성있는 정보를 전달하는지 검증하고자 착수되었다.

원칙중심기준인 K-IFRS는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 강화를 위해 공정가치평가를 확대하고 있으며 영업권회계처리도 20년을 넘지 않는 내용연수에 걸쳐 기계적으로 상각하던 기준이 폐지되고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평가를 이용한 손상검사를 실시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러한 회계변경은 기업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정보이용자에게 목적 적합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일부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자산분류의 경우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회계선택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영업권 회계변경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혼재되어 있으나 주로 영업권손상차손이 경영자의 사적효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주로 손상차손의 인식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K-IFRS 도입 이후 영업권 손상인식의 적시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영업권손상인식이 지연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은 주로 회계기준 변경을 전·후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영업권 감액의 규모를 단순 비교하고 있

는 반면 본 연구는 손상징후가 관찰되는 기업에서의 영업권손상차손 인식여부를 비교하여 선행연구 결과가 가질 수 있는 편의를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Ramanna and Watts(2012)의 영업권손상에 대한 시장징후를 원용하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의 KOSPI와 KOSDAQ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 기말 재무상태표를 통해 영업권 장부금액을 보고한 바 있는 947개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영업권 회계변경 이후 보고되는 영업권손상차손인식의 적시성이 저하되어 정보이용자들에게 더욱 유용한 회계정보를 전달할 것이라는 회계기준 제정기관들의 주장과는 상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영업권손상차손 인식여부를 더미변수의 형태로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연속변수의 형태로 수행된 다변량 회귀분석 모두에서 일관된 모습으로 분석되어, 영업권 회계변경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영업권손상인식의 적시성 변화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단순히 영업권 감액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는 것에 비해 영업권회계변경을 전·후하여 손상징후의 관찰과 인식시기 사이의 관계가 변화하였는지 분석함으로써 손상인식의 적시성 분석에 보다 직접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공헌점을 가진다. 특히, 영업권회계변경 효과를 분석한 다수의 연구들이 손상징후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극복하여 선행연구를 확장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는 손상검사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행되는 손상징후검사 단계를 분석에 고려하여 더욱 세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영업권과 관련한 경영자들의 다양한 회계선택을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직관을 제시할 것이며 이를 감시·감독하는 회계법인과 규제기관에게도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다만, 현재의 공시정보만으로는 본 연구의 손상징후의 정의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어 분석결과에 편의를 포함할 수 있으며, 분석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표본 확보의 불충분으로 인해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광수근·이준일·박선영(2011), “유진그룹의 국제회계기준 조기도입과 하이마트 인수관련 영업권 회계처리 사례,” *회계저널*, 20(2), 91-121.
2. 권수영·김종일·남혜정·권기정·박대준(2011), 사업결합 시 무형자산의 평가절차 및 평가기법과 영업권 손상평가. 연구보고서.
3. 노민영·유영태·장진호(2012), “K-IFRS 도입과 영업권 손상인식,” *회계저널*, 21(6), 133-162.
4. 박석진·이은철(2014), “영업권손상인식의 전략적 회계처리: 최고경영자 교체시점의 Big Bath를 중심으로,” *회계·세무와 감사연구*, 56(2), 105-138.
5. 백정환(2015), “K-IFRS 도입 이후 영업권 손상인식의 재량이사결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회계학연구*, 40(4), 141-178.
6. 손혁·박영진·박성진(2011),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손상감사에 대한 연구,” *회계저널*, 20(2), 207-238.
7. 오명진(2014). “K-IFRS에 따른 영업권 손상감사 사례,” *국제회계연구*, 53, 210-229.
8. 한국회계기준위원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36호 “자산손상”
9. 정대현·배성미·김종대(2015), “K-IFRS 도입이 영업권 손상차손 인식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40(3), 299-337.
10. AbuGhazaleh, N. M., O. M. Al-Hares, and C. Roberts(2011), “Accounting discretion in goodwill impairments: U.K. evi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ing* 22(3), 165-204.
11. Ball, R.(2006),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Pros and cons for investors,”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International Accounting Policy Forum* 36, 5-27.
12. Barth, M. E., W. R. Landsman, and M. H. Lang(2008),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accounting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Research* 46(3), 467-498.
13. Beatty, A., and J. Weber(2006), “Accounting discretion in fair value estimates: An examination of SFAS 142 ‘Goodwill impairmen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4(2), 257-288.
14. Carlin, T. M., and N. Finch(2011), “Goodwill impairment testing under IFRS: A false impossible Shore?,” *Pacific Accounting Review* 23(3), 368-392.
15. Chen, C., M. Kohlbeck., and T. Warfield(2008), “Timeliness of impairment recognition: evidence from the initial adoption of SFAS 142,” *Advances in Accounting* 24(1), 72-81.
16.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2001),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142. Goodwill and other intangible assets. Norwalk. CT: FASB.

17. Francis, J. R., and D. Wang(2008), "The joint effect of investor protection and big 4 auditors on earnings quality around the world,"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5, 157-191.
18. Godfrey, J. N., and P. S. Ko(2009), "Goodwill impairment as a reflection of investment opportunities," *Accounting and Finance* 49(1), 117-140.
19. Hamberg, M., M. Paananen., J. Novak (2011), "The adoption of IFRS 3: The effects of managerial discretion and stock market reaction," *European Accounting Review* 20(2), 263-288.
20.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2004),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3: Business combination.
21. Jarva, H.(2009), Do firms manage fair value estimates? An examination of SFAS 142 goodwill impairments. *Journal of Business Finance and Accounting* 36(9): 1059-1086.
22. Muller, K. A., M. Neamtiu., and E. J. Riedl(2012), Do managers benefit from delayed goodwill impairments? working paper.
23. Ramanna, K., and R. Watts(2012), "Evidence on the use of unverifiable estimates in required goodwill impairment,"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17, 749-780.
24. Wines, G., R. Dagwell., and C. Windsor (2007), "Implication of the IFRS goodwill accounting treatment," *Managerial Auditing Journal* 22(9), 862-880.
25. Zeff, S(2005), The Evolution of U.S. GAAP: the political forces behind professional standards, part 1. *CPA Journal* 75, 18-27.

Abstract

The Effect of K-IFRS Adoption on Goodwill Impairment Timeliness[†]

Baek, Jeong-Han* · Choi, Jong-Seo**

In this paper, we aim to analyze the effect of accounting policy change subsequent to the adoption of K-IFRS in Korea, whereby the firms are required to recognize impairment losses on goodwill on a periodic basis rather than to amortize over a specific period. As a principle-based accounting standard, the K-IFRS expands the scope of fair value measurement with a view to enhance the relevance and timeli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the same vein, intangibles with indefinite useful life, of which goodwill is an example, are subject to regulatory impairment tests at least once a year. Related literature on the impact of mandatory change in goodwill policy document that impairment recognition is more likely to be practiced opportunistically, mainly because managers have a greater discretion to conduct the tests under K-IFRS. However, existing literature examined the frequency and/or magnitude of the goodwill impairment before versus after the K-IFRS adoption, failing to notice the impairment symptoms at individual firm level. Borrowing the definition of impairment symptoms suggested by Ramanna and Watts(2012), this study performs a series of tests to determine whether the goodwill impairment recognition achieves the goal of communicating timelier information under the K-IFRS regime.

Using 947 firm-year observations from domestic companies listed in KRX and KOSDAQ markets from 2008 to 2011, we document overall delays in recognizing impairment losses on goodwill after the adoption of K-IFRS relative to prior period, based on logistic and OLS regression analyses. The results are qualitatively similar in robustness tests, which use alternative proxy for goodwill impairment symptom. Afore-mentioned results indicate that managers are likely to take advantage of the increased discretion to recognize the impairment losses on goodwill rather than to provide timelier information on impairment, inconsistent with the goal of regulatory authority, which is in line with the improvement of timeliness and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in conjunction with the full implementation of K-IFR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tant literature on goodwill impairment from a methodological viewpoint. We believe that the method employed in this paper potentially diminishes the bias

[†] Corresponding author acknowledges the financial support from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2-Year Research Gra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 Phd,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jhbaek@pusan.ac.kr

**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jschoi@pusan.ac.kr

inherent in researches relying on ex post impairment recognition, by conducting tests based on ex ante impairment symptoms, which allows direct examination of the timeliness changes between before and after K-IFRS adoption.

Key Words: K-IFRS, Goodwill, Impairment, Timeliness